

도내 중등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전북교육청, 시험지 보관 보안시설 개선·단계별 답안지 보관관리 강화 등 방안 마련… 중·고교 학교장에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 학생 평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타 시도에서 학생 평가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에 대한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방안에는 △학생평가 보안관리 역량 강화 △시험지 보관 보안시설 재점검 및 개선 △단계별 답안지 보관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충청남 3단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도교육청의 선제적 안내와 학교 현장의 구체적 실행 및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1단계(학기초)는 전북교육청이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안내하면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연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자와 평가담당자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집중 연수도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2단계(시험 전)는 연 4회 정기고사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이 고사 전반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면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정기고사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평가 단계별 운영 매뉴얼'과 '보안관리 점검표'를 활용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한다. 3단계(시험 후)에서는 학교는 학생평가 운영 전반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교육청

은 재시험 등 중대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점검 체계를 가동해 평가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지원한다. 시험지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평가관리실, 인쇄실 등 시험지 보관 장소 보안도 대폭 강화했다. 평가관리실 출입문은 이중잠금장치를 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한 CCTV는 2학기 1차고사 시행 전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시험지 보관과 인쇄물을 보관하는 보관장 역시 이중 잠금을 의무화하고, 관리를 이원화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한다. 답안지 분실 및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 스마트 평가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채점부터 이의신청, 성적처리까지 전 과정을 스캔으로 이미지화된 답안지를 활용함

으로써 분실 또는 조작 등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중·고등학교장 연수를 통해 안내했다. 아울러 시험지 출제부터 인쇄, 보관, 시행, 채점까지 평가의 전 과정을 담은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매뉴얼' 영상을 제작·배포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충실한 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동물미생물학실험실은 최근 글로벌 학술 분석기관인 ScholarGPS로부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탁월한 연구 성과 ‘인정’

전북대 동물미생물학실험실, 국제 위상 높여
송수연 교수, 세계 상위 0.5% 연구자 선정
학생들도 학회서 최우수·우수상 수상받아

전북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동물미생물학실험실(지도교수 송수연)이 세계적 학술 평가 기관으로부터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동물미생물학실험실은 최근 글로벌 학술 분석기관인 ScholarGPS가 발표한 연구자 영향력 평가에서 실험실을 이끄는 송수연 교수가 세계 상위 0.5% 연구자(Top Scholar)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ScholarGPS는 연구자의 논문 출판 및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세계적 기관으로, 이번 선정은 그간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교수는 동물과학 분야 세계 53위, 미생물 생태학 분야 세계 19위에 오르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내성, 퍼시스터(persister) 세포 제어 등 미생물 응용 연구 분야에서의 꾸준한 성과

를 인정받았다. 실험실의 연구 경쟁력은 소속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로도 이어지고 있다. 동물미생물학실험실 소속 학생들은 최근 열린 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한국낙농식품응용물학회에서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부문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올렸다. 이 대회에서 박가린 학생은 구두 발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김혜민 학생은 구두 발표 부문에서 두 차례 우수상을, 박원민 학생은 우수 포스터상을, 이광준 학생은 포스터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프로바이오틱스 및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표했다. 송수연 교수는 "우리 실험실의 연구 경쟁력이 학생들의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학생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빛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문적 성장과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치과대학, 베트남 후에대학서 ‘사랑의 인술’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유미경)이 전북대 글로벌컬대30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후에대학교병원을 찾아 의료봉사와 학술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유미경 학장과 윤정호 전북대 치과병원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 동창회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지난 16~20일 베트남 후에대학병원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치과 진료를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한국의 선진 치과기술을 접목한 'K-Dental' 진료가 제공돼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대 치과대학과 후에대학교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도 함께 열렸다. 특히 신효근 전북대 명예교수(구강악안면외과)의 구순구개열 수술 봉사 20주년을 기리는 행사도 진행, 지난 20년간의 인도주의적 나눔과 협력의 성과를 현지에 각인시켰다. 한편 후에대학교 치과대학에는 지금까지 전북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28명의 졸업생 중 9명이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미경 치과대학장은 "전북대와 후에대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됐으며, 앞으로도 양교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5 국토타장정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17일 10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된 '2025학년도 국토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장정에는 재학생 29명이 참가해, 서로 협력하고 인내하며 공동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에 학생들은 매일 30km가 넘는 길을 함께 걸으며 각자의 한계를 넘어섰다. 비록 예정보던 독도 방문은 날씨로 인해 취소됐지만, 울릉도에서의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새겼다. 특히 포항 지역 일정에는 박진배 총장과 임정업 총동문회장이 함께해 여정의 의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청 5층 회의실에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우리문화(무형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형유산 체험 등 전통문화 교육 힘 모아

전북교육청, 국립무형유산원과 우리문화 교육 적극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전통문화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우리문화(무형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박관용 국립무형유산원장과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전북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을 기르

고,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교육의 내실화를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문화 체험교육 운영 및 인력 공유 △교원 대상 무형유산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자문·협조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사례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양 기관은 △국제교류수업 참

여학교 무형유산 교육자료 지원 △글로벌 브릿지 캠프 참가 학생 대상 '우리문화 알림활동' 사전교육을 함께 운영한 바 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무형유산은 지역과 세대를 잇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과 자긍심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전통문화 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컬대학 본지정 구체적인 추진방안 모색

전주대,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초청 간담회… 호원대 총장도 함께 참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1일 스타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초청해 글로벌컬대학 본지정 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컬대학 지정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전주)과 김슬지 부위원장(비례), 강태창 의원(군산), 김명지 의원(전주), 염영선 의원(정읍), 이수진 의원(비례), 정종복 의원(전주)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과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도 함께했다. 먼저, 브리핑 시간에는 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공동 추진 중인 글로벌컬대학 본지정 준비 현황과 향후 혁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학이 지역과 세계를 잇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양 대학의 노력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글로벌컬대학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 두 대학 간의 연합 시너지,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을 나눴다. 참석 의원



전주대학교는 21일 스타센터에서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글로벌컬대학 본지정 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들은 지역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전주대와 호원대가 나가기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조언도 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지역 대학이 글로벌 혁신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희성 총장은 "호원대와 전주대가

연합해 추진하는 이번 글로벌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인 글로벌컬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도의회와 함께 공유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장은성 기자

“호우 피해 신속복구 최선”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비상보호체계 정비 등 당부
고교학점제 관련 “선택 과목 개설방안 등 대책 마련을”

“집중호우 피해가 있는 학교와 기관의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1일 열린 전라회의에서 “지난 주 학교안전과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현황 조사와 대응에 애써줘 감사하다”며 “비상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 과목 개설이라든지 학생 출결 사항, 성취도 미도달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안과,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부족에 따른 불안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유아 언어능력 향상 적극 지원

전북교육청, ‘특독! 말해드림 언어발달지원사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언어 발달 지원 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특독(Talk Talk!) 말해드림(Dream)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뿐만 아니라 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목적이다.

사업설명회는 △사업 취지 및 실행 방안 안내 △유아기 언어 발달 특성 △언어 발달 지연 유아 선별 및 지원 방안 △진단검사 후 맞춤형 지원 방안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언어 발달 지연 유아는 진단비 지원을 받게 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언어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세계시민·문화다양성교육’ 운영 학교 공모

전북교육청, 2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 찾아 가는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교육' 운영 학교를 공모한다.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공모는 지구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함께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시스템(www.jbe.go.kr/gongmo)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전북교육청이 구성한 'JB-지구촌 지원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다만, 학교가 학부모·교직원 대상 연수 또는 학생 대상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